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4월 3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(044-203-5740),
안홍상 서기관(5741), 민경언 사무관(5743)

신흥국 중심의 '자유무역협정(FTA) 제2라운드' 본격 추진

- 산업부, FTA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'新FTA 추진전략' 발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**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"전략적 FTA 추진"**의 일환으로, **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"新FTA 추진 전략"을 발표했음**

* '15.2.27(금) 대외경제장관회의(경제부총리 주재)에서 정부안 의결, '15.4.29(수) 국회 보고

○ 금일 발표한 "新FTA 추진 전략"은 **2013년 6월 발표한 "新통상로드맵*"을 구체화**한 것으로, 정부는 앞으로 이에 따라 **국가별·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**해 나갈 계획임

*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(linchpin)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산업·자원협력을 포함하는 상생형(win-win) FTA 등 FTA 정책 방향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전략 제시

【추진배경】

□ 새 정부 출범 이후 한-중 FTA 등 5건의 FTA를 신규로 타결하면서 美·EU·中 등 **거대경제권** 및 **선진국과의 FTA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,**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을 담은 **"新FTA 추진 전략" 수립이 요구**되었음

* OECD 34개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, 멕시코, 이스라엘 등 3개국
- 일본('04.11), 멕시코('08.6)는 협상 중단, 이스라엘은 공동연구 완료('10.8)

○ 특히 **중국, 일본 등 인접국들도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*** 하고 있어, 기체결 FTA를 통해 구축된 **FTA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** 하기 위한 **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**한 상황임

* (중국) 아시아, 유럽, 중동, 아프리카 지역 60개국을 대상으로 FTA, 인프라, 무역 원활화, 금융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외경제협력 방안인 일대일로(一帶一路) 정책 추진
(일본) 광역 FTA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TPP, 일-EU FTA 추진 등 '18년까지 FTA 교역 비율 70% 확대 추진

【세부내용】

□ 동 추진 전략은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 **메가(Mega)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**, ② **기체결 FTA의 개선**, ③ **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**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TPP · 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

* 메가 FTA :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양허 수준, 통상 규범 등을 제고하는 다자간 FTA

- 美·EU·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, TPP·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, **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**

-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**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**(linchpin)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**국익과 실리를 최우선**으로 하여 대응할 계획임

② 기체결 FTA 개선

- **아세안 · 인도** 등 **활용도가 낮은 FTA**에 대한 **개선을 추진**하는 한편,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 모색할 계획임

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

- 향후 FTA 대상국은 경제적 지표(GDP · 실행관세율 · 인구 등), 상대국의 통상정책,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

- 이에 중동, 중남미 등 **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**으로, 신규 FTA 대상국은 권역별로 다음과 같음

< 권역별 신규 FTA 추진 계획 >

중남미	중동	중앙아	아프리카	아시아
중미 6개국, 에콰도르, 멕시코, MERCOSUR	요르단, GCC, 이스라엘 등	몽골, 우즈벡 등	이집트, 남아공 등	일본, 인니, 파키스탄 등

* : 공동연구 완료 국가

- **중미 6개국* 및 에콰도르와는 금년내 협상 개시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****하였으며, 적절한 계기에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임

*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파나마 6개국

** '15.4.1일 중미FTA/에콰도르 무역협정 공청회 개최, '15.4.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「한-중미FTA/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계획」 의결, '15.4.29일 국회보고

- **기타 중동, 중앙아시아, 아프리카 등 지역**에 대해서는 협상 실익, 상호 협상 여건, 상대국 입장 등을 감안하여, **공동연구 추진 등 향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**할 예정임

□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"금일 발표한 新FTA 추진 전략은 **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**하고, **旣구축한 FTA 플랫폼을 공고히** 하는 한편, **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**하기 위한 전기(轉機)를 마련하기 위한 것"이라고 언급함

< 참고 > 1. 신FTA 추진전략
2. 한-중미 FTA,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(TA) 추진계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(☎ 044-203-5740), 안홍상 서기관(☎ 044-203-5741), 민경언 사무관(☎ 044-203-57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신FTA 추진전략

가. 검토 배경

□ 그간 **11건**(49개국)**의 FTA 기발효**(52개국 15건 타결), **FTA 시장규모**는 전세계의 **약 60.4%**(타결 기준 73.5%)로 **세계 5위** 수준(타결 기준 3위)

* 순위 : 칠레(85.1%), 페루(78.0%), 멕시코(63.6%), 코스타리카(63.5%), 한국(60.4%)

** 美 · EU · 中 등과 동시에 FTA 체결국중 세계 10대 무역강국은 한국이 유일

○ 새 정부 출범 이후 5건의 FTA 타결, 美 · EU · 中 등 **거대경제권과의 FTA** 및 OECD 회원국 등 **선진국과의 FTA 사실상 완료**

* OECD 34개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, 멕시코, 이스라엘 등 3개국
- 일본('04.11), 멕시코('08.6)는 협상 중단, 이스라엘은 공동연구 완료('10.8)

□ 향후 단기 · 중장기로 추진할 FTA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**세부적인 "신FTA 추진전략" 수립** 필요

나. 필요성

□ 美 · EU 등을 비롯 **中 · 日 등 인접국도 적극적 FTA 추진**, 지속적 FTA 추진을 통한 **FTA 플랫폼 공고화 필요**

< 국가별 FTA 추진전략 >

○ (中) 지리적 인접국 및 자원 확보 중심으로 적극적 FTA 정책 추진
○ (日) '광역 FTA 연계망 구축'을 목표로 '18년까지 FTA 교역비율 70% 확대
○ (美) 자국에 유리한 무역규범 확대 목적의 TPP · TTIP 등 FTA 정책 전환
○ (EU) DDA 협상 난항 이후 역외국가와의 FTA 가속화

□ 아태지역에서는 글로벌 분업구조가 심화되면서 **GVC 편입 경쟁이 치열**, FTA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**지역경제 통합 논의 가속화**

○ 또한, 최근 신흥국은 **경제 성장 엔진이자 소비시장으로 부상**한 바, 쌍방간 산업 · 자원협력 방안을 창출하여 성장 기반 모색 필요

다. 전반적인 FTA 체결 효과 평가 · 분석

□ **(경제일반)** 그간 FTA 체결로 인한 교역·투자는 **경제성장에 기여**하고 **소비자 후생**에 **긍정적인 효과** 시현(KIEP, '15)

○ '13년 FTA로 인한 **추가 성장 비중은 39.7%** 수준, 각 FTA별 성장효과 비교시 **EU 0.897%, ASEAN 0.426%, 칠레 0.11%** 順('14년 누적)

* FTA효과 / 전체 경제성장률(%) : ('05) 0.048 / 3.9 → ('13) 1.19 / 3.0

○ 소비자후생 비교시 **ASEAN 64.14억불, EU 45.10억불, 칠레 8.01억불** 증가 順('14년 누적), '04년 이후 수출기업 영업이익률은 내수기업 초과

□ **(무역)** FTA **무역비중 41.1%, 수출비중은 43.1%** 시현('14)

* 무역 / 수출비중(%) : ('10) 15.7 / 17.6 → ('12) 35.4 / 37.6 → ('14) 41.1 / 43.1

○ 對FTA 체결국 교역·수출증가율이 對세계 교역·수출증가율 능가, FTA 체결 이후 **당해연도 4.6% → 5년후 11.8% 수출 증가**(KIET, '15)

* FTA 발효국 수출증가율('14, %) : (발효국 전체) 7.1, (대세계) 2.4, (비체결국) △0.6
FTA 발효국 수입증가율('14, %) : (발효국 전체) 4.6, (대세계) 1.9, (비체결국) 0.6

○ 가격경쟁력 확보, 新시장 개척, 무역창출·전환 효과 등으로 FTA 체결 이후 **수출입 품목이 다변화**되며, **관세 절감**으로 수익률 개선

* 품목수 변화(발효 전년→'13년) : (칠레 수출) 938→1,562, (칠레 수입) 168→886 등
* '13년 관세절감액은 연간 79.9억불(무협 추정치), 기타결 FTA 발효시 연간 약 150억불

□ **(산업경쟁력) 인접국인 中·日**에 비해 美 및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 **FTA 체결국 수와 FTA 시장규모 우위**

* FTA 개수/FTA 시장규모 : (日) 14개/17.55%, (中) 10개/18.13%

○ 한-칠레 FTA 이후 자동차·기계 등 주력 수출품의 **對세계 경쟁력 상승** 추세, GVC 편입이 가속화되며 **산업의 부가가치도 증가**

* '06→'12년 RCA : (자동차) 1.57→1.83, (정밀기기) 1.93→2.43
* '05→'11년 NRCA(부가가치 기준 RCA) : (자동차) 1.92→2.89, (기계) 1.17→1.35

□ **(중소·중견기업) GVC 편입, 신규 판로 개척** 등으로 ASEAN·美·EU에 대한 수출은 **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양호**

*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(석유제품 제외, '12) : (美) 中小 4.0% > 大 2.1%, (EU) 中小 △3.3% > 大 △12.9%, (ASEAN) 中小 9.4% > 大 7.0%

라. 향후 FTA 정책방향

목표 : **경제혁신을 지향하는 상생형 통상국가**

정책 기조

1. **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**
2. **신흥국 중심 상생형 FTA**
3. **기구축한 FTA 플랫폼 공고화**

⇩

추진 과제

1 TPP, RCEP, 한중일 FTA, FTAAP 등 Mega-FTA 대응

2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기설정 의제 추진

3 신흥 유망국 중심의 신규 FTA 적극 추진

⇩

세부 전략

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

① 기업 수요를 반영한 FTA 추진
- 기업제안제 실시를 통한 중소·중견기업 실익 반영

② 여건을 고려하여 병행추진형 "Dual FTA" 개시
- 유사 지역, 산업·교역구조를 가진 국가(군) 협상 병행 추진

③ "상생형 FTA" 추진을 위한 기존 FTA 모델 전환
- 실체적 협력 방안 마련 등 신흥국 니즈를 반영한 신규 모델 창출

⇧

추진 배경

○ 美·EU·中과의 FTA로 FTA 허브 완성을 위한 플랫폼 기구축, 이를 수성하기 위한 Mega-FTA 대응, 활용률 제고 등이 과제

○ 2000년대초 FTA 후진국 탈출 위해 FTA 고도성장기를 거쳤으며, 이제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FTA 이행·업그레이드 집중 필요

마. 세부 추진 과제

(1) Mega-FTA 대응

□ 美·EU·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체결된 이후 **TPP, RCEP 등 Mega-FTA에 대한 관심 고조**

○ **기구축된 FTA 플랫폼**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, **국익과 실리를 최우선**으로 Mega-FTA에 적극 대응

□ 각 Mega-FTA별 **협상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차별화된 대응전략** 추진

(2)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기설정 의제 추진

□ **(기체결 FTA 업그레이드)** 아세안·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 **주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 지원**

○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□ **(기설정 의제 추진) 한반도 역외가공지역**(OPZ) 및 **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**(MRA) 등도 정부간 논의 가속화

(3) 신흥국 중심의 양자 FTA 추진

□ 향후 FTA 대상국은 경제적 지표(GDP·실행관세율·인구 등) 및 국제정치적 요인, 상대국의 통상정책,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< 신규 FTA 추진 여건 >

◈ **(협상 중단)** 일본('04.11월), 멕시코('08.6월), GCC('09.7월), 인니('14.2월)

◈ **(공동연구 완료)** MERCOSUR('06.10월), 이스라엘('10.8월), 중미('11.4월), 말레이시아('12.12월), 에콰도르('13.6월)

◈ **(공동연구 진행)** 태국('12.11월 개시 합의)

바. 지역별 신규 FTA 추진 계획

◈ 경제적·정성적 분석, 여건 성숙도,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**신규 FTA 추진 대상을 권역별로 분류**

중남미	중동	중앙아	아프리카	아시아
중미 6개국, 에콰도르, 멕시코, MERCOSUR	요르단, GCC, 이스라엘 등	몽골, 우즈벡 등	이집트, 남아공 등	일본, 인니, 파키스탄 등

1 중남미

○ **중미 6개국*** **및 에콰도르**는 금번 국회 보고를 통해 통상절차법상 **국내 절차 완료, 금년도 협상 개시** 선언 후 본격 협상 추진

* 중미6개국 :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파나마

○ **멕시코**는 협상 재개 여부 검토, **MERCOSUR**는 상대국 동향, 협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**협상 기반 조성**

* MERCOSUR :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베네주엘라

2 중동

○ **GCC**는 협상 재개 여부 검토, **요르단** 및 **이스라엘**은 협상 실익, 상대국 동향, 협상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**협상 기반 조성**

* GCC : 사우디, UAE, 쿠웨이트, 오만, 카타르, 바레인

3 중앙아시아

○ **몽골** 및 **우즈베키스탄** 등은 협상 실익, 상대국 동향, 협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**공동연구 추진** 등 **기반 조성**

4 아프리카

○ **이집트** 등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, **남아공** 등은 협상 실익, 상대국 동향, 협상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**공동연구 추진** 등 **기반 조성**

5 아시아

○ **일본·인니** 등은 협상 재개 여부 검토, **파키스탄** 등에 대해서는 협상 실익, 상대국 동향, 협상 여건 등을 감안 **협상 기반 조성**

2 한-중미 FTA 추진 계획

가. 한-중미 FTA 필요성 및 기대 효과

* 중미6개국 :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파나마

□ **(필요성)** FTA를 통한 **교역 증가** 및 **수출 시장 다변화, 중미 시장 선점, 미주 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**을 위해 한-중미 FTA 추진 필요

○ 중미 6개국은 중남미(멕시코 제외)에서 **GDP규모 5위**(2,098억불), **인구규모 3위**(4,350만명)**의 시장**으로 향후 시장잠재력 多大

- 한-중미 6개국 교역규모('14년 50억불)는 크지 않지만, **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**으로 **교역량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***

* 한-중미 6개국 교역량(백만불) : ('04) 2,673 → ('14) 5,002
- (수출품) 자동차, 선박, 합성수지, 편직물 등 / (수입품) 당류, LPG, 기타금속, 컴퓨터 부품 등

○ 일부 양자 FTA*외에 **중미 주요국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 全無**, 한-중미 FTA로 중미시장에서 中·日 상품에 대해 비교 우위 확보

* 중-코스타리카 FTA('11.8월 발효), 싱가포르-파나마 FTA('06.7월 발효) 등

○ 중미 6개국은 **지정학적 위치**뿐만 아니라 적극적 FTA 정책으로 **미주 지역 FTA 허브***로 부상 중, 한-중미 FTA로 미주 진출 교두보 마련

* 중미 차원에서 美, 멕시코, 칠레 등 6건의 FTA 체결 외에, 코스타리카 등 주요국은 페루, 캐나다, 콜롬비아 등과 추가로 FTA를 타결하여 사실상 미주 전체와 FTA 타결

- 파나마를 비롯한 중미 6개국은 적극적 FDI 유치 정책으로 **기업·투자 환경이 양호**, 섬유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미주 진출 기지로 활용

* 한국의 對중미6개국 투자(억불, 신고기준, 누계) : ('11) 25→ ('14) 38.6
* 파나마 세계은행 기업환경(Doing Business) 순위: ('13)61위→('14)55위→('15)52위

□ **(기대효과)** 한-중미 FTA 경제적 타당성 검토('15.2월)에 따르면, FTA 체결시 우리나라 **GDP 0.0257%, 후생 8,234만불 증가 예상**

○ **對중미 6개국 수출*은 1.4~7.1억불 증가**, 특히 對과테말라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 예상(2.3억불)

* 품목별로 자동차, 광물성생산품(석유·역청유 조제품), 섬유, 기계·전자기기 등 증가 예상

나. 추진 경과

□ '10.6월 한-코스타리카, 한-파나마 정상 회담시, 코스타리카·파나마 등의 요청에 따라 **'10.10～'11.5월 한-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**

□ '12.10월 **제1차 한-중미 FTA 추진가능성 검토회의** 개최(코스타리카)

○ 중미측은 협상 개시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, 우리측은 다수 FTA 추진 등 여건상 협상 개시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전달

□ 이후 중미측은 주요 계기를 통해* **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 지속 요청**

* (코스타리카) 코측 부통령, 우리 총리 면담시 한-중미 FTA 추진 희망 언급 ('13.11)
(파나마) 제1차 한-파 고위정책협의회시 한-중미 FTA 개시 제안('13.12)
(엘살바도르) 한-중미 FTA 개시를 희망하는 경제부장관 명의 공식 서한 발송('14.10)

□ '15.2.27일 **「新FTA 추진전략」 대경장 의결**을 통해 상반기중 한-중미 FTA 추진에 대한 **관계부처간 합의 도출**

○ '15.4.1일 한-중미 FTA 대국민 공청회 실시, '15.4.7일 **「한-중미 FTA 추진계획」 대경장 의결**

다. 한-중미 FTA 목표

□ 경제통합 수준이 높은 중미 6개국*과 상품, 서비스, 규범 등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**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**

* 대외 공동관세를 부과중인 중미공동시장(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) 및 파나마는 경제적 공동체인 SIECA(중미경제통합기구) 결성

○ 상품 분야 **관세/비관세 장벽 인하·철폐**를 통해 경쟁력 제고

○ **서비스 장벽 완화·철폐, 투자 자유화 촉진 및 투자자 보호 강화**로 중미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 환경 개선

○ **투명성 증진, 지재권 보호 강화** 등을 통해 중미지역內 우리 기업·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3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(TA) 추진 계획

가.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

□ **(필요성) 수출 증대** 및 **자원 협력 확대, 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** 차원에서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필요

○ 에콰도르 경제규모*는 크지 않으나 최근 4년간 5~7%의 안정적 성장 지속**, HSBC의 2050년 고성장 전망 26개국('12년) 선정 등 **향후 발전가능성 지대**

* 에콰도르 경제규모('14, 억불, 백만명) : GDP 1,005(칠레 2,641, 페루 2,082), 인구 15.6(칠레 17.3, 페루 30.1)

** 에콰도르 실질 GDP 성장률(%) : ('11) 7.8 → ('12) 5.1 → ('13) 4.5 → ('14) 4.6

- 에콰도르는 **상호보완적 산업구조**를 바탕으로 **교역량은 지속 증가중***

* 한-에콰도르 교역액 '06년 399백만불 → '14년 1,154백만불로 약 3배 증가
- (수출품)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 등 / (수입품) 원유, 새우, 동, 알루미늄 등

- 특히, 우리 주요 수출품인 **자동차(35-40%), 전자제품(15-25%)의 관세가 높고 수입 쿼터*** 등으로 수출이 제한되어, 개방시 수출 확대 기대**

* 에콰도르는 대외무역위원회 고시를 통해, 자동차, 휴대폰에 대한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, 전자 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율 상향 조정

○ 자원 부국인 에콰도르와의 무역 협정 체결로 **자원협력 확대 및 석유 수입 다변화 효과* 기대**

* 에콰도르는 베네수엘라, 브라질에 이은 남미 3위의 석유 부존국(82억 배럴, '13)으로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의 57%를 차지

○ 에콰도르는 **중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**을 가진 국가로, 한-에 무역협정을 통해 멕시코, MERCOSUR 등 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*

* 에콰도르는 그간 중남미 위주의 대외 정책에서 벗어나, EU와 무역협정 체결('14.7월), 터키와 협상, EFTA, 한국 등과 협상 개시 적극 추진 중

□ **(기대효과)** 한-에콰도르 민간공동연구('13.6월)에 따르면,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 **GDP 0.01~0.04%, 후생은 51.0-292.5백만달러 증가** 예상

○ 산업별 효과로는, **자동차(0.15%), 화학(0.1%), 의류·직물(0.07%), 육류(0.01-0.04%), 식품(0.03%)** 등 분야 생산량 증대 예상

나. 추진 경과

□ '12.4월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한-에콰도르 TA 타당성연구 진행에 합의하고, **'12.9～13.6월 민간공동연구 실시**

□ 공동연구 완료 후 에측은 주요 인사 訪韓* 계기 **한국과의 협상 개시 지속 요청**, 우리측은 그간 다수 FTA 추진으로 **유보적 입장 견지**

* 에콰도르 아태 통상책임대사-통상차관보 면담('13.5.24), 한-에 외교장관 면담('13.6.18), 에콰도르 외교부장관-산업부 2차관 면담('14.7.1) 등

□ '15.2.27일 **「新FTA 추진전략」 대경장 의결**을 통해, 금년 상반기 중 한-에콰도르 TA 추진에 대한 **관계부처간 합의 도출**

○ '15.3.12일 **통상추진위원회**에서 **「한-에 무역협정 추진 계획」 관계부처 의견 수렴,** '15.4.1일 한-에 TA **공청회 실시**, '15.4.7일 **대경장 의결**

다.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목표

□ 상품, 서비스, 규범 등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**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**

○ 상품 분야 **관세/비관세 장벽 인하·철폐**를 통해 경쟁력 제고

○ **서비스 장벽 완화·철폐, 투자 자유화 촉진 및 투자자 보호 강화**로 중미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 환경 개선

○ **투명성 증진, 지재권 보호 강화** 등을 통해 에콰도르內 우리 기업·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